

기본소득 -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

글 | 서희원

기본소득과 코로나19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0년 4·15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이슈화될 것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 하곤 했다. 그러나 4·15총선 보다 코로나19가 먼저 와 버렸다. 거리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으로 부산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알려야 할 책무가 있는 기본소득활동가로서 2020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었다. 몇 년의 활동을 돌이켜 보면 거리에서 캠페인을 할 때 대부분 시민들의 반응이 ‘국가에서 돈을 주면 좋겠다.’ 또는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반응들이 돌아오곤 했다.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가장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여행과 취미활동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해주었고, 대출금 갚기, 알바 그만두기, 공부에 집중, 부모님 용돈, 저축 등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올해도 기본소득 홍보활동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거리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으로 홍보를 해버렸다. 새로운 홍보 방법과 질문을 만들어내야 한다.

실질적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더 나은 세상

19c를 노예해방의 시대라 하고, 20c를 참정권 쟁취의 시대라 한다. 그리고 21c를 기본소득 획득의 시대라 한다. 노예들이 긴 투쟁과 수많은 죽음으로 해방을 만들어내었듯이 돈 있는 백인 남성 위주의 참정권 또한 마찬가지였다. 특히, 여성의 참정권 쟁취는 남성보다 더 한 투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각 시대의 상징적 표현을 지금의 현 시점에서 더하고 합해보자.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의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경영학자 위렌 베니스는 이런 말을 했다. “미래의 공장에는 개 한 마리와 직원 한 사람만 있을 것이다. 개는 사람이 기계를 건드리지 못하게 감시하기 위해서이고 사람은 개에게 먹

이를 주기 위해 필요하다.” 이 말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과거 정부든 현 정부든 지치지도 않게 일자리 창출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고용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비정규직 삶은 비참하고, 고단하여 19c의 노예가 21c에서 적은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지금 당장 내가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좀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소득과 기본소득을 동시에 받으면서 실질적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상상이 현실이 된 경험을 우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조금이나마 맛을 보았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먼저 정치적으로 대의 민주주의 형태에서 시민들이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고 전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광장에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형태의 광장민주주의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로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보면 청년 학생들이 중심에서 있다. 이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갈망에서 시작되었지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함께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노동시간이 많다는 것은 삶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다른 곳에 눈길을 두기에는 사치일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이런 무관심이 자신의 삶이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모른 채 말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평등이 보장되며 정치 참여가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산된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라 할 때 기본소득은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서희원 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시민교육실현실'해'대표로서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주의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운영위원장으로 기본소득 운동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

21c 임금노동자의 삶은 19c 노예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 21c 참정권자의 삶은 20c 참정권자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 기본소득 획득을 통해, 노예가 해방되었듯이 임금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실질적 자유를 맞이하고, 기본소득 획득을 통해, 참정권을 쟁취했듯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맞이하자.

그리하여 우리들은 지금 보다 더 좋은 삶을 누려야 한다.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은 <빵의 쟁취>라는 책에서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할 권리’가 아니다. 우리가 선언할 것은 ‘좋은 삶을 살 권리’이고 ‘모두가 좋은 삶을 살 권리’이다.”

기본소득과 공유부

헌법은 한 나라의 최상위 법이며, 한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노래도 함께 불렀다. 여기에 담긴 공화의 의미는 공공의 것(res publica)으로 읽혀진다. 사적인 것과 비교되고 반대되는 영역이다. 토마스 페인은 “한 나라의 부는 모든 이전 세대들의 기여로부터 나오며, 오늘날 운 좋은 사람들이 덜한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사는 것은 마땅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은 “모든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해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획득한 것”라고 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도 과거 세대의 지식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다. 천연자원도 공유하고 지식도 공유해야 해야 한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정부는 1년에 한 번 원유 수익 배당금을 영구기금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알래스

카 주민들에게 1,500~2,000달러를 분배해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는 제주도민들에게 관광자원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나누어 주는 날이 빨리 오기를 대해 본다. 페이스 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1c 석유’라는 말이 있다. 데이터를 생산해 주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 때문에 페이스 북이 존재하는 것이다.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제와 복지의 이름으로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기억해라! 기본소득은 아주 단순하다.

밭 한 패기

권정생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른다. 밭 한 패
논 한 패기
그걸 모두
‘내’ 거라고 말한다.

이 세상
온 우주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내’ 것은 없다.
하느님도
‘내’ 거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다.

아기 종달새의 것도 되고
아기 까마귀의 것도 되고
다람쥐의 것도 되고
한 마리의 메뚜기 것도 되고
밭 한 패기
돌맹이 하나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모두의 것이다.

<참고자료>

- 오준호, 2017,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 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